

# 이 땅에서 직접 정성다한 초공양 올리세요

## 국산 및 일본산 고급 원료 사용... 한뿔 한뿔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를 만드는 삼환양초(우정산업)

“육법 공양 중 최고의 공양은 지혜의 불빛을 상징하는 초 보시입니다.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초는 세상을 밝히는 광명 지혜, 즉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초를 만들어 불자들이 공양을 올리도록 하는 것은 제 자신의 큰 공덕을 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자리한 삼환양초(우정산업). 평일 오전 이른 시간에도 공장은 실재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자동화 기기 작업과 수작업이 번갈아 진행되는 바쁜

일할 등 불교에서는 스스로를 바쳐 지혜를 밝히는 등과 초 공양을 찬탄하는 내용이 수없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의미에도 그동안 불자들은 부처님 앞에 직접 초나 등을 올릴 수 없었다. 바로 화재 위험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전에서는 LED 이용하고 야외에서 초를 공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P.C컵 양초는 불교의 참 의미를 살려낸 공양을 가능케 했다. 게다가 심지가 안에 위치해 P.C컵 자체의 바람막이

부처님 앞에서 초에 불을 붙이는 순한 초가 타며 날린 그윽음이 불상에 내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속인으로서의 안타까움이 심금을 울렸다.

공장 한 칸에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양초를 자식같이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양초 아버지 최 현규 삼환양초 대표다.

역할로 야외에서도 일반 양초보다 꺼지거나 불꽃이 날릴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어 기존 사찰 초 공양에도 큰 편의성을 가져다 줬다.

최근 인테리어와 패션 소품으로 재정의되며 다양한 활용이 되고 있는 양초. 하지만 한때 전기와 조명기기의 보급으로 사양산업의 위기에 처했던 양초업계였다. 이러한 양초산업에 최 대표가 뛰어 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일정시간 타고 꺼지는 일본 초 공양서 착안 타는 시간 조절 기능, 디자인 특허 5개**

P.C컵 양초는 P.C컵 내 용량을 정해 타는 시간을 조절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은 켜 놓은 초로 뒷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이 방해받는 것을 막는 신 불교문화 구축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오사카에서 일본 사찰을 대상으로 양초를 판매하며 노하우를 쌓은 최 대표의 식견이 녹아 있다. 삼환양초 창업 후 최 대표는 2001년 오사카에 제일 교포 스님들과 일본 사찰을 대상으로 양초매장을 개설한다.

이때 최 대표는 5분에서 시간 단위로 자

**#화재위험 크게 줄인 P.C컵 양초 개발 성공 이제 법당에서 직접 초 공양 가능해져**

최 대표의 여기엔 각 사찰에 특화된 초를 개발해왔다. 바로 P.C컵 양초(Poly Carbonate)다. 2010년 불에 타지 않는 P.C컵 내 양초를 담은 초는 하단에 크리스탈 받침으로 무게중심을 잡아줘 목조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찰에서 화재위험을 크게 줄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부가적으로 삼성화재 화재보험에도 가입돼있다.

불교에서는 등과 초 공양을 육법공양의 첫 번째로 여긴다. 이는 등과 초가 스스로를 태워 다른 이를 밝히는 순수한 보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현우경(賢愚經)> 빈녀난타품(貧女難陀品)에서 가난한 난타가 밝힌 등이 꺼지지 않았다는 ‘빈자일등’

이제는 등과 초 공양을 육법공양의 첫 번째로 여긴다. 이는 등과 초가 스스로를 태워 다른 이를 밝히는 순수한 보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현우경(賢愚經)> 빈녀난타품(貧女難陀品)에서 가난한 난타가 밝힌 등이 꺼지지 않았다는 ‘빈자일등’



신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춘 초를 각자 공양하는 일본불자들이 보며 큰 양초를 공양하는 것을 으름으로 여겨 다른 이들의 공양을 방해하는 한국의 문화를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다.

이러한 P.C컵의 특징점은 일선 사찰에서 초 공양을 올린 뒤 타고 남은 초를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호와 자원활용의 의미가 더한다.

최 대표는 “사찰 법회에 많은 신도가 동시에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신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P.C컵 양초는 현재 디자인특허 출원 등 5개 특허를 딴 상태다.

**#중국업체의 거센 도전, 국산 업체 자존심 지켜 프리미엄급 양초로 거듭나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초업계에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초를 만드는 재료비가 급등하고 또 국내에서 재료를 만드는 업체가 없어 대부분 원료를 중국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공양의 의미가 이 땅에서 직접 정성을 기울인 것을 올린다는 참의미에서도 국산업체의 존재는 소중하다.

이런 상황에서 삼환양초는 국산 원료와 일본 닛폰 사의 고급원료를 수입해 결합하고 있다. 수익이 적더라도 질 좋은 제품, 또 한뿔한뿔 정성을 기울인 것을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최 대표의 장인정신 때문이다.

하지만 최 대표의 이러한 마음에도 일선 대형 사찰은 작은 단가 차이로 중국산 양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한다.

최 대표는 “초를 연구개발하고 일에 쫓겨 지냈지만 마음 속에는 항상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고 부처님과 불자들을 위해 일한다

는 생각을 지니고 지내왔다”고 말했다.

신년과 부처님오신날, 백중 등 명절과 불교행사에 각 영세 사찰과 고아원 등에 초 보시를 하고 있는 최 대표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자비 덕분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덕을 쌓아 나갈 계획이다”며 모든 공을 부처님께 돌렸다.

이 날도 삼환양초 공장의 한쪽에서는 봉축을 맞아 전국 각지에 보시용으로 보내는 양초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되고 있었다. 어두운 밤 삼환양초의 공장에서는 최 현규 대표와 삼환양초 가족들의 깊은 불심이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 ‘양초아버지’ 최 현규 삼환양초 대표

불심, 불연, 장인정신이 지금 그를 만들어

최 대표는 부처님에 대한 불심(佛心)과 그로 인한 인연, 좋은 초를 만들겠다는 장인정신이었다고 단언한다.

최 대표가 양초산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한 사찰에서 우연히 찾아왔다. 1990년대 초 사업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있었던 최 대표는 평소 의지하던 경기도 양평 일각사에서의 수행활동 인연으로 양초공장을 운영하던 젊은 도반을 만난다.

이 젊은 도반에게 공장운영을 제안받은 최 대표

는 생전 처음 접하는 ‘양초’라는 사업영역 앞에 고민에 빠진다. 마음을 가라 앉히고자 찾은 한 사찰 대웅전에서 최 대표는 부처님 앞에 향과 초를 올리는 순간 초에서 날린 그윽음이 불상에 자욱이 앉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로서 죄스럽고 안타까움이 최 대표의 심금을 울리고, 최 대표는 그윽음이 없는 제대로 된 양초를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

일각사 일각 스님의 격려로 용기와 힘을 얻은

최 대표는 1990년 정월부터 낫설은 양초제작 과정에 입문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처음부터 최 대표가 ‘양초 아버지’라 불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 접하는 양초생산 작업에 최 대표의 손은 벗겨지고 또 벗겨졌다. 갖은 고생 끝에 최 대표는 10월 하순경 기술 습득을 마쳤다. 이어 공장인수를 완료했지만 최 대표가 만들고자 했던 그러한 양초를 만들 수는 없었다. 바로 일반적인 범용 양초를 만드는 공장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도 ‘부처님께 제대로 된 초를 공양 올리겠다’는 최 대표의 열정을 식힐 순 없었다.

최 대표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결국 1994년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약삭을 이용한 천연 양초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대부분의 양초업체가 사용하는 중국산 액체 파라핀 원료가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당에서 기도하며 상주하다시피하는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마음의 결과물이었다.

최 대표는 약삭 양초 개발에 이어 기존의 양초 영업을 버리고 사찰 전문의 길을 택한다. 불교계 굴지의 양초사업체인 삼환양초의 탄생인 것이었다.

최 대표는 이어 밀랍(벌집)을 이용한 초를 추가적으로 개발해 내 삼환양초는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의 사랑을 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양초업계의 선두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 밀랍 양초는 법당 내부에 별래가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어 큰 사랑을 받았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민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오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 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 **농협: 121068-56-042256** [예금주: 강태규]  
◆ **우체국: 612416-02-031008** [예금주: 강태규]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며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바림칼라등**  
30cm

연화만월등  
(원색, 분홍, 빨강, 파랑, 초록)

**비단접등**  
10.5cm  
12cm

전통복등색상  
빨강, 파랑, 초록, 흰색, 분홍, 노랑

공단등 (6cm)	@2,700원(100개이상)
공단등 (8cm)	@3,300원(96개이상)
공단등 (10.5cm)	@5,500원(24개이상)
공단등 (13cm)	@12,000원(12개이상)
공단등 (20cm)	@35,000원(4개이상)

바림등 (6cm)	@2,700원(100개이상)
바림등 (8cm)	@3,300원(96개이상)
바림등 (10.5cm)	@5,500원(24개이상)
바림등 (13cm)	@12,000원(12개이상)
바림등 (20cm)	@35,000원(4개이상)
칼라바림등 (30cm) / 칼라공단등 (30cm)	

방수전선간격(50구)

22cm / 25cm / 30cm / 50cm  
1m / 2m \* 기타주문생산

**연잎(일반)**  
5,000원(1묶음)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전구(5W/8W)**  
45,000원 [국산]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연등속지백색 1묶음**  
6cm 3,500원 / 8cm 4,000원  
10.5cm 4,500원 / 12cm 6,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 수 있음

**집게부착PVC등류**  
@20,000원  
(100개)  
크기: 8.5x21cm